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아이돌 스타 안방극장 접수

박유천·유이 등... 빼어난 노래·연기 과시

지금 안방극장에서는 가수 출신, 특히 아이돌 스타 출신 연기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약 중이다. 연기들의 선두 주자로는 박유천, 은정, 유이, 윤아, 수지 등을 꼽을 수 있다.

티아라의 은정(24)은 아역배우 출신답게 '관록'을 뽐낸다. 올 초 JTBC '인수대비'에서 인수대비의 어린 시절을 능수능란하게 소화했던 그는 그에 앞서 '드림하이' '근초고왕' '커피하우스' '왕과 나' '토지' 등 많은 드라마에서 '성공관 스캔들'로 '혜성'처럼 드라마에 등장한 이후 '미스 리플리'를 거쳐 지난 5월 말 종영한 '옥탑방 왕세자'로 '진짜 연기자'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넝쿨당' 상반기 최고 시청률

올해 상반기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TV 프로그램은 KBS 2TV 주말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하 '넝쿨당')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청률 조사기관 TNmS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방송된 지상파 TV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을 조사한 결과 '넝쿨당'이 33.4%로 시청률 1위에 올랐다.

2위는 '넝쿨당'의 전작인 KBS 2TV 주말극 '오작교 형제들'로 31.0%를 기록했고, MBC 수목극 '해를 품은 달'은 30.0%로 3위에 올랐다. 시청률 상위 10위 안에는 드라마가 7개로

이다. 지난해 '드림하이'에서 풋풋한 모습으로 사랑받았던 그는 지난달 시작한 KBS 월화극 '빅'에서 짝꿍 발랄한 여고생을 연기하고 있다. 후발 주자들의 면모도 쟁쟁하다. JYJ의 김재중(27)은 MBC 주말극 '닥터진'을 통해 사극 연기에 도전 중이다. 지난해 '보스를 지켜라'에 이은 두 번째 드라마지만 김재중 역시 '월드스타'답게 빠른 속도로 인기를 몰고 체득해나가고 있다. JYJ의 또 다른 멤버 김준수는 뮤지컬계 최고 배우이자 지난해 '여인의 향기'에 카메오 출연한 바 있다. JYJ에 이어 최근에는 씨엔블루 멤버들이 드라마에서 부상하고 있다. 정용화(23)가 2009년 '미남이시네요'로 인기를 끈 뒤 지난해 '내 내게 반했어'의 주인공을 꿰찬 데 이어 강민혁(21)은 현재 최고 인기 드라마인 KBS 주말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김남주(차윤희 역)의 남동생 차세광 역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이종현(22)은 SBS 주말극 '신사의 품격'에서 출생지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 극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콜린 역을 맡고 있다.



가장 많았고, 연예오락 부문에서는 KBS 2TV '개그콘서트'(20.3%), 스포츠 부문에서는 SBS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생중계(22.2%), 보도 부문은 KBS 1TV '뉴스 9'(18.5%)가 이름을 올렸다.

Table titled '知天命이 되는 오늘' (Knowing Fate Today)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haracteristics for the year 2012.

Table with EBS program listings, including 'EBS플러시' and 'EBS플러시2' sections.

Language learning advertisement for 'You're a good person' featuring a lesson on the idiom '장자(조장) 도울 조, 길 장' (Helping the long, the long way).

Language learning advertisement for 'You're a good person' featuring a lesson on the idiom '送君千里, 终须一别' (Sending you a thousand miles, you must eventually part).